



보도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4. 5. 17.(금)

R&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개편

- 신속·유연한 R&D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R&D 예타 전면 폐지
-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전문검토 기능 보완방안 마련 중
- 국가재정법 개정과 함께, 법령 개정전 과도기 대비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

□ 정부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&D 사업을 신속·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&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편을 추진 중입니다.

- 한편, 사업부실,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며,
- 향후,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, 법령 개정 전의 과도기를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※ **해외사례(美·英·日)** : 기획보완 중심 사전검토 실시(사전 예타 미실시)

- (美) 사업실시 부처별 자체 타당성 검증 → 결과 관리예산처(OMB) 보고
- (日·英) 대형 R&D 사업별 자문단 구성·단계별 Phase 리뷰 통해 추진

※ (참고 : R&D 투자확충) 정부는 R&D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'25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예정*

* '23년도 예산(29.3조원, 비R&D이관 1.8조원 제외), '24년도 예산(26.5조원)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혜림 (044-215-73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민 (sseung513@korea.kr)
	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	책임자	과 장	강경구 (044-215-54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희준 (first3828@korea.kr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	책임자	팀 장	김태규 (044-202-6940)
		담당자	사무관	김홍주 (bsomju00@korea.kr)

